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40 호 | 2019.10.31

'R의 공포'에 온라인 쇼핑도 성장세 꺾여... "안 사고 안 써요" (조선비즈, 9.3)

상반기 온라인 매출 평균 15% 성장...7월엔 8.7% 한자릿수 성장 그쳐

'R의 공포' 커지자 소비 줄여...오프라인 성장률은 마이너스 5.6%

온라인 쇼핑 실망감·배달과 반품 불편함 확대... "피로감 높아졌다" 지적도



매월 두 자릿 수 성장하던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매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격차 확대,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확대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국내 온라인 쇼핑 매출 성장률은 8.7%에 그쳤다. 올 상반기(1~6월) 평균 15%씩 성장하던 것과 비교하면 42% 가량 줄어든 것이다. 배송서비스 등이 확대되며 식품 주문이 크게 늘었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구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오프라인 점포는 더 부진했다. 오프라인 점포 성장률은 마이너스(-) 5.6%를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이 지난해 7월과 비교해 13.6% 감소했고, 백화점은 4%,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7% 줄었다.

안지영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유통업은 전체적으로 역성장했다"며 "오프라인 점포 부진은 작년보다 낮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에 따른 대형가전, 식품 중심의 매출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생활형편전망 10년래 최저...불안감 커지자 소비 줄여

전문가들은 유통업 부진 이유를 소비심리 위축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미·중 무역분쟁 심화, 한·일간 긴장감 고조 등으로 'R의 공포'가 커지면서 소비를 줄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종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소비자심리지수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5로 한달 전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민간소비와 직결된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9로 전년보다 4.9하락했다.

2003~2018년의 소비자 심리 평균치를 100으로 놓고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앞으로의 생활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8월 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 지수도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한 94로 2009년 4월 이후 최저였다. 가계 재정과 관련해 비관적으로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객단가가 감소한 것도 소비 침체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7월 한달 간 소비자들의 구매단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다. 구매 건수도 모든 업태가 감소하며 작년 7월보다 3% 가량 줄었다.

◇온라인 판매중개 매출 83% ↓ …“온라인 쇼핑 피로감 높아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 여행 예약이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G마켓·11번가 같은 온라인 판매중개 매출 감소폭보다 여행 등 온라인 판매액이 큰 폭 줄었다. 온라인 판매중개 매출 성장률이 올해 10.8%로 작년 7월(16.3%)보다 줄어든 폭과 비교해 온라인 판매매출 성장률은 3.6%로 작년(21.5%)과 비교해 83% 가량 감소했다.

작년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피해 해외로 여행 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소비여력이 줄어든 데다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면서 온라인 쇼핑 전체 성장률도 꺾였다. 하나투어의 패키지 예약률은 7월 한달간 14.4% 감소했다. 8월에도 18.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8~9월 매출 회복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추석이 9월 초순이라는 점과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허나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자가 이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온라인 판매중개와 온라인 판매매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것을 보면 소비자 심리 둔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8월 추석 수요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향되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우려 요인"이라고 했다.

온라인 쇼핑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결정했던 상품을 실물로 마주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배달과 반품의 불편함' 때문이다.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의 부담에 더불어 반품이 가능하더라도 불편함 때문에 시도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동섭 딜로이트 부동산리테일 담당 전무는 "오프라인 쇼핑은 상품 구입 그 자체보다도 상품 구매의 전과정과 그 과정 동안의 경험을 느낄 수 있다"며 "온라인은 결코 그 과정을 대신할 수 없고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경험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벨]다이나맥 거래종결...캠코 첫 회생투자 성공 (더벨, 9.9)

2019년 상반기 인수·합병(M&A) 회계자문 부문에서는 딜로이트 안진이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1분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첫 회생기업 구조조정 투자가 성공리에 끝났다. 첫 투자대상으로 낙점된 다이나맥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됐다. 캠코는 유암코-파인우드 PE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1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회생안 인가는 국내 첫 자율구조조정(ARS) 성공사례이기도 하다.

6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다이나맥의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91.56%·회생채권자 83.79%의 동의율로 통과됐다. 법원은 이날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다이나맥이 '유암코-파인우드 기업재무안정 PEF'가 설립한 새로운 SPC 에 인수되는 것이 골자다. SPC 는 다이나맥이 발행하는 신주 150 억 원과 회사채 150 억 원을 합해 총 300 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변제재원으로 활용해 다이나맥은 △회생담보권 236 억 원 △회생채권 66 억 원 △공익채권 3 억 원 등을 변제한다.



해당 SPC 에는 유암코-파인우드 기업재무안정 PEF 가 200 억 원을 출자하고, 캠코가 100 억 원을 출자했다. 유암코와 파인우드 PE 는 이번 다이나맥 투자로 지난 2017 년 결성된 600 억 원 규모의 기업재무안정 PEF 의 투자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현재 해당 PEF 에는 △디에이치일렉트로닉스 △엠티코리아 등이 편입돼 있다.

캠코의 이번 다이나맥 투자는 첫 구조조정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캠코는 지난 7 월 회생기업 구조조정 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하며 올해 총 3000 억 원의 투자를 공언했다. 캠코는 연내에 △경영정상화 PEF LP 투자 2000 억 원 △DIP 금융 300 억 원 △DIP 금융 전용펀드 투자 600 억 원 등을 예정하고 있다.

파산업계 관계자는 "캠코의 첫 투자가 관계인집회의 문턱을 넘으며 성공리에 끝난 셈"이라며 "다만 향후 투자대상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자체적인 배양 능력과 위 치설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이나맥의 회생계획안 인가는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의 첫 성공사례로 기록됐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가 최대 3 개월 동안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이나맥은 매각주관사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ARS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금결제방식을 어음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등, 회사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ARS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제일의료재단 등도 AR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실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암코-파인우드 PE 에 인수된 다이나맥은 지난 1972 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다. 현대·기아차, BMW, 폭스바겐 등 국내외 완성차업체에 엔진 베어링캡, 브레이크 피스톤 등 정밀부품을 공급해온 다이나맥은 1997 년부터 전자부품 사업도 영위해왔다. 다이나맥은 2011 년 매출액 1000 억 원을 돌파한 뒤 완성차 업계의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기업이 반했다...불황도 비껴간 연 4兆 '알짜' 고속도로 휴게소 (조선비즈, 9.18)

CJ-SPC·풀무원 등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경쟁 치열
마진 높고 온라인 영향 없어...불황 속 블루오션으로 각광
年 평균 9% 고속성장...간이시설서 복합 유통시설로 진화

지난 1 일 새롭게 문을 연 서울춘천고속도로 가평휴게소. 약 3 만평 규모의 이 곳은 10 년만에 새 주인을 맞았다. 베이커리 대기업인 SPC 삼립이 운영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이곳엔 파스쿠찌·베스킨라빈스·빔은 등이 들어섰고, 오는 27 일엔 카카오 프렌즈샵이 입점한다.

이 곳은 원래 풀무원이 운영하던 곳이다. 가평휴게소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10 대 중 4 대가 들를 정도로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집객시설 없이 운영돼 고객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가평휴게소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10 여곳 이상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측은 사업능력과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등 기술부분 제안서를 비중 있게 심사해 1 차 협상자를 선발했다.



1 차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가격부분 입찰 기회를 부여한 후 최고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파리바게트·썬벡버거·던킨 등 다양한 식음료(F&B) 브랜드를 보유한 SPC 삼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운영권을 따냈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재계약에 실패하자 계약이행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 회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상대로 가평휴게소 공개입찰

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으나 기각됐다. SPC 는 앞으로 10 년간 가평휴게소를 운영하며, 김천·진주 등 총 6 곳의 휴게소 운영 사업자가 됐다.

◇ 대기업 뛰어드는 고속도로 휴게소...불황 속 블루오션으로 각광

SPC, CJ, 풀무원 같은 대기업 식품회사들이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0.038%)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Deflation·물가하락) 공포가 커진 가운데, 휴게소 사업은 연 9% 이상 성장하는 블루오션(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는 220 개로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장규모는 4 조 원 이상이다. 2010 년(2 조 2000 억 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체여서 절대 강자가 없다는 점도 대기업에 매력적인 요인이다. 현재 휴게소 내 주유소를 제외한 휴게소 한 곳당 매출은 평균 60 억 원대로 500 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1 위 덕평휴게소와는 8 배가량 차이가 난다.

하지만 상위 20 개 업체가 전체 휴게소 매출의 30% 밖에 차지하지 못해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 휴게소가 한 곳당 12 만명을 흡수하는데 반해 한국 휴게소는 한 곳당 23 만명의 수요를 흡수하는 형태라 경쟁강도가 약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가평휴게소는 1000 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통행하는 전국 2 위 휴게소로, 연간 1000 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400 억 원 안팎의 매출을 내는 주유소 사업도 매력적이다.

춘천고속도로 내 경쟁휴게소는 흥천·내린천 휴게소 두 곳뿐이고 휴게소 간 거리가 40km 가량 떨어져 있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성하면 덕평휴게소를 물리치고 전국 1 위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동섭 딜로이트 안진 부동산리테일부문 전무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른 유통업보다 마진이 상당히 높고 온라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크다"며 "국내 진화된 휴게소의 성장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 화장실 등 단순 목적 해결 위한 간이시설에서 고급 유통시설로 진화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시행사에 휴게소 건설을 맡기고 장기운영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운영권을 가진 시행사는 임차 운영사에게 운영권을 재임차한다. 시행사가 원하는 임대료 수준만 지급한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 임차 운영사는 비싼 임대료를 넘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휴게소 방문 고객의 1차적인 니즈(요구)에 집중해 식음료 시설을 집중 구성했고, 비싼 음식값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다.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지 않아 체류시간이 짧은데다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매출액)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아서다.

최근 1~2년새 문을 연 덕평·마장·매송·시흥 등 고속도로 휴게소는 '2세대 휴게소'로 불리며 기존에서 탈피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 푸드코트, 전문식당가가 아닌 지역맛집과 델리 카페를 강화해 기존 휴게소와 차별화 했다. 전문마트, 쇼핑몰을 구성해 객단가를 높이고, 광장·놀이시설 등을 구성해 집객 및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늘리고 있다. 대보유통이 운영하는 화성휴게소는 지난 5일 성신여대 미술대학과 협업해 꽃길 미술공원을 개장했다. 화성휴게소(목표방면)는 약 200억 원 이상의 연매출을 내는 상위 휴게소다.

김갑록 화성휴게소장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닌 볼거리가 많은 휴게소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휴게소 혁신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장기 혁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처럼 휴게소 자체에 방문 목적성을 부여하기에는 콘텐츠 구성과 운영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1030여개의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는 과거 단순목적 해결을 위한 간이시설에서 쇼핑과 위락, 문화가 복합된 독립적 대형상권으로 진화해 왔다.

수족관·극장·쇼핑·도시공원 등 휴게소와 주변 지역문화를 연계한 장시간 체류형 휴게시설 '하이웨이 오아시스'를 비롯해 어린왕자·에도시대 휴게소 등 차별화된 콘셉트를 통해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정 전무는 "대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리테일 운영 노하우 접목을 통해 국내 휴게소가 소비자들 이 체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살기 좋은 나라 순위 5단계 하락...대기오염·온실가스가 악영향 (매일경제, 9.20)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발전지수(SPI)를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149개국 중 23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146개국 중 18위)보다 5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20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

매일경제
한국, 살기좋은나라 순위 5단계 하락...대기오염·온실가스가 악영향
기사입력 2019.09.20. 오후 3:58 | 기사원문 |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2 3

요약본 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사회발전지수(SPI)를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149개국 중 23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146개국 중 18위)보다 5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20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표한 2019 사회발전지수에서 한국이 85.61점으로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의 종합 순위는 2015년 29위, 2016년 26위, 2017년 26위 등이었다.

SP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연합(UN)이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삶의 질'을 측정한다. 소득·투자 등 경제적 요소를 제외하고 기본적 욕구(의료·위생·주거·안전), 웰빙의 기반(건강·기초지식·정보·환경), 기회(자유·권리·교육접근성) 등 3개 부문의 점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딜로이트는 2013년부터 SPI 조사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웰빙의 기반' 하위 요소인 '환경의 질' 항목으로 92위(61.02점)에 그쳤다. 해당 항목은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평가한다. 이 항목은 지난해에도 52위를 기록하며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개

표한 2019 사회발전지수에서 한국이 85.61점으로 2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의 종합 순위는 2015년 29위, 2016년 26위, 2017년 26위 등이었다.

SP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연합(UN)이 설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삶의 질'을 측정한다. 소득·투자 등 경제적 요소를 제외하고 기본적 욕구(의료·위생·주거·안전), 웰빙의 기반(건강·기초지식·정보·환경), 기회(자유·권리·교육접근성) 등 3개 부문의 점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딜로이트는 2013년부터 SPI 조사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순위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웰빙의 기반' 하위 요소인 '환경의 질' 항목으로 92위(61.02점)에 그쳤다. 해당 항목은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온실가스 배

출 등으로 평가한다. 이 항목은 지난해에도 52위를 기록하며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으나 올해 오히려 40단계나 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다른 하위 요소인 기초지식 접근성과 정보·통신 접근성 등이 각각 7위와 3위를 기록했음에도 '웰빙의 기반' 부문은 종합 25위를 기록했다.

또 성 소수자 포용력과 소수자 차별, 성별 정치적 영향력 등이 포함된 기회 부문에서도 26위(73.90 점)로 지난해보다 낮게 평가됐다.

반면 기본 의료지원, 위생, 주거, 개인 안전 등 인간의 기본 욕구 부문에서는 96.87점으로 7위를 차지하며 작년보다 3계단 상승했다.

사회·환경 등 사회발전 측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등극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주요 3개국은 일본(10위), 한국, 중국(89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지난해보다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서장 교육·소통 가이드…'90년대생'이 기업도 바꾼다 (조선에듀, 9.23)

신입사원 교육, 피드백·평가 방식 변화 잇따라
의견 표현에 거리낌 없어…합리적 지시 요구
전문가들 "사회·문화적 영향 받은 측면 있어"



#. 식품업계에서 2년째 근무 중인 막내 사원 김혁(가명·29)씨는 팀원들의 회식 가자는 제안을 '오늘은 운동을 가보려고 한다'며 거절한다. 상사가 결혼은 빨리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40세까지 제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한 뒤 결혼하겠다'고 의견을 밝힌다. 그는 "평소 가치관을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며 "이러한 모습을 새롭다고 느낀 팀장이 최근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읽더라"고 했다.

90년 이후 출생한 청년들이 일터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은 주장이 뚜렷하고 합리성을 중시하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특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이런 성향이 이전 세대와 만나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 90년대생 특성에 맞춘 기업 교육 속속 등장

90년대생에 대한 이질감을 호소하던 기업들은 최근 이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직원교육 프로그램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면, 이젠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도입했다.

LG 화학은 최근 신입사원이 '밀레니얼 세대와의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직접 강연하고, 이를 임원 300여 명이 듣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조직 의사결정과정에서 90년생들이 속속 참여하면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기업 경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NH투자증권은 부서장과 예비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의 주제를 '90년생을 이해하기'로 잡았다. '90년생이 온다'를 쓴 임흥택 작가를 직접 초청해 강연을 맡겼다. 포스코도 올해 2월 리더급 직원을 대상으로 '밀레니얼 세대 소통 가이드'를 제작해 나눠줬다.

'리버스 멘토링' 제도도 확산하고 있다. 이 제도는 후배가 선배에게 최신 트렌드와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CJ CGV는 사원 2~3명이 임원 한 명에게 4개월간 리버스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했다. 대명리조트도 '동상일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신입사원이 임원의 멘토가 돼 최근 이슈나 SNS 활용법을 코칭했다.

기존 신입사원 교육도 바뀌었다. 신입사원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이 늘었다. 90 년대생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원의 업무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SK 그룹은 이런 교육을 통해 4 분기부터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유심 플레이트 크기를 반으로 축소하는 등 실제 경영에도 반영했다. 이외에도 CJ, LG 등 대기업들이 이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소통 노력을 강조하는 양상도 보인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 하반기 '일대일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신입사원의 관심사, 흥미, 학습스타일을 분석해 코칭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코칭 방안'을 부서 팀장에게 전달한다. NHN 은 평가할 때 객관식 결과뿐 아니라 주관식 서술로 직원의 태도, 결과, 기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등급만 알려줘서는 성장을 도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아예 인사제도까지 수정하는 회사도 있다. 사내 부서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사내공모제도'를 넘어, 최근에는 공개적으로 이직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신입사원들이 직장에 요구하는 발전 가능성을 열어둬 직무 몰입을 높이는 방법이다. 송한상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는 "조직 밖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고객사 이직 정보를 경력관리 시스템에 공개해 둔다"며 "개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회사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고 했다.

◇ "직업 유연성 높아진 시대, 평생직장 없어"

이런 변화는 90 년대생의 세대적인 특성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다. 90 년대생과 이전 세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조직에 대한 인식이다. 기업들은 대체로 90 년대생이 기업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평생 한 직장에 머물 수 있단 기대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종합상사에 입사한 김은경(가명·24)씨는 "평생직장은 없다"며 "지금 일하는 곳에서 경험을 쌓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2 년차 사원 최준수(28)씨는 "지금 다니는 기업이 30 년 후에도 남아있을 것이란 확신이 없다"며 "조직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강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일처리보다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올해 상반기 홍보업체에 입사한 장지영(가명·25)씨는 "비합리적인 지시에 반발하면 '윗사람이 잘못해도 수긍해야 한다'는 반응이 돌아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특성은 사회변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90 년대생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축사회'를 맞이하는 첫 세대다. '미래공부'(글항아리)를 쓴 미래학 전문가 박성원 작가는 "청년층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며 "희망이 없으니 조직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혀가며 인내할 이유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90 년대생의 특성은 사회적 변화에서 비롯하므로 기존의 조직문화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교훈을 전하려는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 변화에 맞게 기업이 바뀌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벨][thebell League Table]딜로이트 안진 1 위 수성...추격하는 삼일 PwC (더벨, 10.1)

딜로이트 안진이 2019 년 3 분기(누적) 인수·합병(M&A) 회계자문 부문에서 상반기에 이어 정상 자리를 지켰다.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삼일 PwC 는 딜 수임 건수로는 딜로이트 안진보다 두 배나 많은 실적을 쌓았지만 거래 규모에서 밀려 2 위에 그쳤다.

더벨이 집계한 올해 3 분기 회계자문 M&A 리그테이블에서는 딜로이트 안진이 완료기준 조정점유율 29.30%로 상반기에 이어 1 위를 유지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3 분기 누적 기준 총 22 건의 거래(거래 규모 약 11 조 7026 억 원)에서 자문역을 맡아 활약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1 분기부터 2 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안착했다. 이후 2 분기에 딜로이트 안진이 회계자문을 제공한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3 조 5000 억 원)과 린데코리아(1 조 3000 억 원) 등 조단위 빅딜이 클로징됐고, 딜로이트 안진은 1 위로 올라섰다.

다만 딜로이트 안진은 3분기에는 이렇다 할 빅딜 실적 없이 2분기 효과로 1위 자리를 지켰다. 테크로스의 LG 전자 자회사 엘지히타치위터솔루션과 하이엔텍 인수 실적(2500억 원)이 딜로이트 안진이 3분기 회계자문을 제공한 딜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LK 투자파트너스를 도와 삼양옵틱스 지분 59.52%를 약 1000억 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 HDC 현대산업개발의 한솔개발의 신주 인수(580억 원) 거래에서 인수 측 자문을 제공해 실적으로 추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첫 회생기업 투자 거래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다이내맥(300억 원) 딜에서도 딜로이트 안진은 매각 측 자문을 제공했다.

[thebell League Table]

딜로이트안진 1위 수성...추격하는 삼일PwC

[M&A/회계자문]삼성-EY한영 순..4분기 결과 주목

김혜린 기자 | 공개 2019-10-01 10:03:00

f t G+ - +

이 기사는 2019년 09월 30일 16:45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로이트안진이 2019년 3분기(누적) 인수·합병(M&A) 회계자문 부문에서 상반기에 이어 정상 자리를 지켰다.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삼일PwC는 딜 수임 건 수로는 딜로이트안진 보다 두 배나 많은 실적을 쌓았지만 거래 규모에서 밀려 2위에 그쳤다.

더벨이 집계한 올해 3분기 회계자문 M&A 리그테이블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이 완리기준 조정점유율 29.30%로 상반기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딜로이트안진은 3분기 누적 기준 총 22건의 거래(거래 규모 약 11조 7026억 원)에서 자문역을 맡아 활약했다. 딜로이트안진은 1분기부터 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안착했다. 이후 2분기에 딜로이트안진이 회계자문을 제공한 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3조 5000억 원)과 린데코리아(1조 3000억 원) 등 조단위 빅딜이 클로징됐고, 딜로이트안진은 1위로 올라섰다.

SAMSUNG
Newsroom

삼성전자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삼일 PwC는 거래 건수(44건)면에서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지만, 거래 규모가 6조 2507억 원에 그쳐 딜로이트 안진에 밀렸다. 삼일 PwC가 맡은 딜 가운데 3분기에 완료된 거래만 14건에 이른다. 3분기만 놓고 보면 규모 면에서도 삼일 PwC는 경쟁사를 압도했다.

삼일 PwC는 베어링 PEA를 도와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 인수 거래(6000억 원)를 성사시키는 등 천억 원대 딜 5건을 실적으로 올렸다. 3분기 완료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자산운용 인수(1230억 원), LG 생활건강의 '뉴에이본(New

Avon)' 인수(1454억 원), 동화기업의 파낙스이텍(1179억 원) 인수 거래에서 모두 인수 측 자문을 제공했다. 캐터스프라이빗에쿼티의 동부제철 인수(3600억 원)거래에선 매각 측인 한국산업은행을 도왔다.

3위는 삼정 KPMG가 차지했다. 삼정 KPMG는 29건의 거래, 7조 6518억 원의 규모로 조정점유율 25.25%를 기록했다.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삼정 KPMG가 빅 4 회계법인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3분기 5건의 실적(거래 규모 3173억 원)을 쌓은 게 전부다. 4위인 EY한영의 3분기 실적(거래 건수 5건, 규모 4400억 원)보다 부진했다. SG PE의 이랜드이츠 투자(1000억 원) 거래에서 인수 측 자문을, 동화기업의 파낙스이텍(1179억 원) 딜에서 매각 측 자문을 맡은 게 삼정 KPMG의 대표적인 자문 실적이다.

EY한영은 상반기에 이어 4위에 만족해야 했다. 거래 건수는 13건, 거래 규모 2조 7239억 원, 조정점유율 10.10%다. EY한영은 LG전자 자회사(엘지히타치위터솔루션, 하이엔텍) M&A에서 LG전자 측에 자문을 제공해 2500억 원의 실적을 추가했다. 캐터스 PE의 동부제철 인수 거래에서 인수 측 자문사로도 활약하기도 했다.

다만 4분기에는 삼일 PwC가 1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SKC의 화학사업부 지분 매각 실적(5358억 원), KEB하나은행의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인수 실적(약 1조 원) 등 삼일 PwC가 관여한 거래가 연내 클로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 꺾찬 안진회계법인, '감사인 지정제 최대 수혜'...재기 발판 마련 (뉴스웨이, 10.16)

三電 외부감사인 40년만에 삼일서 안진으로 변경
작년 기준 감사보수 44억, 기타보수 6억 등 50억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휘청였던 안진 성장세 주목

삼성전자의 회계 감사인이 40여년만에 '삼일회계법인'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됐다.

금융당국의 회계 개혁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감사인 지정제)' 적용대상이 되며 40여년간 삼일회계법인 차지였던 외부감사인 자리를 안진회계법인이 꺾찬 것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휘청였던 안전회계법인이 국내 1 위 상징성을 띠는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을 맡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15 일 금융감독원은 2020 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는 오는 11 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기적 지정제'란 6 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의 다음 3 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삼성 꺾친 안전회계법인, '감사인 지정제 최대 수혜'...재기 발판 마련

三電 외부감사인 40년만에 삼일서 안전으로 변경
작년 기준 감사보수 44억, 기타보수 6억 등 50억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휘청였던 안전 성장세 주목

삼성전자의 회계 감사인이 40여년만에 '삼일회계법인'에서 '달로이트 안전회계법인'으로 변경됐다.

금융당국의 회계개혁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감사인 지정제)' 적용대상이 되어 40여년간 삼일회계법인 차지였던 외부감사인 자리를 안전회계법인이 꺾친 것이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휘청였던 안전회계법인이 국내 1 위 상징성을 띠는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을 맡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 개사, 상장예정, 재무기준 등 직권 지정대상 635 개사 등 총 855 개사다.

금감원은 2020 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 곳 중 자산규모가 큰 220 곳을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국내 시가총액 1 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외부감사인이 변경되며 어느 회계법인이 맡을 지 관심이 높았다.

2 위인 삼정회계법인이 삼성생명을 맡고 삼성전자를 두고 EY 한영과 안전회계법인이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됐으며 실제로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안전회계법인과 EY 한영은 회계사 확보에 나서는 등 가산점 챙기기에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인 만큼 감사보수 외에도 외부감사인을 맡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에는 252 개 종속기업, 45 개 관계기업이 얹여 있다.

또한 지난해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일회계법인에 감사보수로 총 44 억 원을 지급했으며 총 소요시간은 5 만 401 시간으로 집계됐다. 회계감사 용역 외에도 세무자문, 관세 등 관련 자문업무로도 5 억 9600 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올해 반기에도 별도 및 연결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로 총 1 만 5733 시간이 소요돼 14 억 6300 만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외 비감사용역 비용은 1 억 1500 만 원이었다.

한편 삼성전자를 맡게 된 안전회계법인의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전회계법인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년 3 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목인했던 안전회계법인에 1 년간 신규 감사수임 정지와 과징금 16 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회계업계 빅 4' 안전회계법인은 인력유출, 매출 감소 등을 겪으며 위상이 흔들렸다.

2015 년 4 개 대형 회계법인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에 이어 매출 2 위를 차지했던 안전회계법인은 2016~2017 년 삼정회계법인에 밀려 3 위로 내려 앉은 뒤 지난해에는 만년 4 위였던 EY 한영에게도 밀리며 4 위로 추락했다.

지난해(2018 년 6 월~2019 년 5 월) 안전회계법인은 매출액 3247 억 원, 영업손실 1 억 2799 만 원, 당기순손실 26 억 원을 기록했다.

2016 년 3000 억 원을 돌파했던 매출액은 2017 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2000 억 원대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3000 억 원대로 올라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외부감사인 수임과 더불어 신외감법이 시행되며 감사수임료와 감사시간이 증가한 만큼 이에 따른 보수 상향이 이어지며 안전회계법인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위상이 크게 떨어졌지만 당시에 고객들이 예상보다 많이 감소하지 않을 정도로 평판이 상당히 좋았다”며 “이번에 삼성전자를 맡게 되며 일부 감사인들간에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국내 최대 기업을 맡았다는 상징성도 생긴 만큼 재기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사태가 전화위복...감사품질에 안진 명운 걸겠다” (한국경제, 10.22)

전용석 딜로이트안진 감사본부장
성과평가 지표 선도적 개선
삼성전자 감사인 선정 큰 기회

“대우조선 사태가 전화위복...감사품질에 안진 명운 걸겠다”

전용석 딜로이트안진 감사본부장

성과평가 지표 선도적 개선
삼성전자 감사인 선정 큰 기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으면서 그 어떤 회계법인보다 절실하게 회계 개혁을 준비해왔습니다. 감사 품질은 회계법인의 존재 이유이자 회계사에겐 목숨처럼 사수해야 할 가치입니다.”



전용석 딜로이트안진 감사본부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고 수준의 감사 품질을 확립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 등을 선도적으로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겪으면서 그 어떤 회계법인보다 절실하게 회계 개혁을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 품질은 회계법인의 존재 이유이자 회계사에겐 목숨처럼 사수해야 할 가치입니다.”

전용석 딜로이트 안진 감사본부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고 수준의 감사 품질을 확립하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 등을 선도적으로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가 터졌던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인이었다. 안진은 2017년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목인·방조한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부과받았다. 이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전 본부장은 “한 번 아파본 사람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듯이, 안진도 대우조선해양 아픔을 겪은 뒤 감사 품질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안전으로부터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자랑스러워 해도 될 정도로 고도의 감사 품질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주요 회계법인 가운데 가장 먼저 감사 업무를 맡은 파트너(임원)들의 평가지표에서 ‘감사 품질’ 항목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렸다. “2017년 평가지표에 감사 품질 항목을 30%에서 70%로 높인 뒤 다른 회계법인들이 과연 이 같은 평가지표로 영업 등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느냐고 물어 올 정도로 파격적인 변화였다”고 전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딜로이트 안진이 신(新)외부감사법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신외감법’의 핵심 제도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딜로이트 안진이 내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감사인을 맡았기 때문이다.

전 본부장은 “40년 넘게 감사인을 바꾼 적이 없고 약 250개에 달하는 해외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전자의 감사인 교체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감사(초도감사)를 맡는 회사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해외 계열사와의 연결 감사와 관련해선 “해외 법인과 내부 거래 등을 이해해야 하는 데다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내야 하기 때문에 모기업 감사인은 통상적으로 해외 법인 절반 수준을 함께 감사하게 된다”며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1970년대부터 삼일회계법인에 외부 감사를 맡겼고 해외 법인의 경우 삼일의 제휴사인 PwC에 외부감사를 맡겨왔다. 앞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을 안진의 제휴사인 딜로이트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64,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9.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